



7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대전삼성-구미LIG전에서 삼성 신진식이 LIG 이종화(14번), 원영철(5번)의 블로킹을 뚫는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전국체전의 해 (3) 광주·전남 예상 성적

광주 1,600명 참가 종합 5위 노린다

지난 1993년 제 74회 광주 전국체전 이후 14년만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 88회 전국체전에서 광주와 전남은 과연 몇위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주는 단골 하위권에서 탈피해 개최지 이점을 안고 종합5위 입상이 가능하다. 광주는 지난 2005년 2만8천192점을 획득해 15위, 2006년에는 2만9천349점을 얻어 14위로 한 단계 상승을 이뤘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88회 광주전국체전에서는 카누를 제외한 40종목에 1천600명(선수 1천100명, 임원 500명)의 역대 최대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5위를 목표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부와 대학부 등 학교팀의 전력향상을 위한 강화훈련 및 지원

17종목 21팀 창단... 기본 점수 확보

전남은 내년 3위권 진입 기틀다지기

이를 위해 광주는 그동안 팀이 없어 점수를 얻지 못했던 17종목에 21팀을 창단, 점수획득에 나선다. 단체종목은 수영, 축구, 테니스, 장구, 농구, 배구, 탁구, 등 14종목 17팀이 창단되며 개인종목은 복싱, 씨름, 유도 등 3종목에 4팀이 창단된다. 또한 체육회 임·직원이 종목 담당제를 실시해 팀과 선수개별 훈련상황을 점검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동계훈련비와 하계훈련비를 증액했으며 우수지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 경기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성 선수중 경기력이 저하된 선수를 과감히 교체하고 올해 체질을 위해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 단체 16개종목 70종별, 개인 대진종목 7개종목 201체급 등 대진추첨종목 전종별(체급)에 참가해 최소

삼성화재, LIG에 짜릿한 역전승

신진식 맹활약 3-1 제압, 현대캐피탈도 상무 꺾어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보험업계 라이벌 LIG를 꺾고 선두 질주를 계속했다. 삼성화재는 7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V-리그' LIG와 남자부 경기에서 '갈색 폭격기' 신진식의 활약을 앞세워 3-1(20-25 25-19 25-23 25-23)로 승리했다. 전남 현대캐피탈전에서 승리한 삼성화재는 2라운드 들어 2연승으로 6승1패를 기록하며 선두를 단단히 지켰다. 삼성화재는 브라질 출신 '괴물 용병' 레안드로 다 실바가 부진한 가운데 리베로 여오현이 중심이 된 단단한 수비 조직력으로 짜릿한 역전극을 펼쳤다. 전남 경기 도중 발목을 다친 센터 김상우가 결장했지만 조승목, 김정훈, 레안드로를 투입해 공백을 메웠다. LIG는 이종수-프레디 윈터스의 '쌍포'를



키네슈 감독-이을용 재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터키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키네슈 신임 FC 서울 축구선수단 감독이 선수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이을용 선수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살리지 못하고 고비에서 잦은 범실로 무너지면서 3승4패를 기록,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삼성화재는 1세트에 LIG의 용병 윈터스의 탄력 넘치는 스파이크에 풀러 기선을 제압당했지만 2세트에는 2점 뒤진 16-18에서 레안드로 대신 투입된 라이트 장병철이 공격과 수비에서 필살 날면서 세트스코어 1-1을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3세트 들어 레안드로를 센터로 돌리면서 높이를 강화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삼성화재는 노장 신진식과 손재홍이 고비마다 강타를 꽂아 넣어 시소게임을 펼쳤고 21-21 동점에서 손재홍과 신진식의 연속 득점으로 승리의 물꼬를 튼 뒤 24-23에서 LIG 이종수가 때린 스파이크가 라인을 벗어나면서 세트스코어 2-1로 앞섰다. 삼성화재는 4세트에 레안드로의 잇단 공격 범실로 3-7까지 뒤졌지만 김정훈의 연속 블로킹으로 6-7까지 추격해 뒤 손재홍이 빠른 공격과 강서브로 상대 코트를 맹폭해 10-9로 분위기를 바꿨다. 접전을 벌이다 18-18 동점에서 상대 범실과 레안드로의 강타, 손재홍의 서브득점으로 22-18로 앞선 삼성화재는 23-19에서 연속 4점을 빼앗겨 23-23 동점을 허용했지만 레안드로의 후위공격과 신진식의 강타로 연속 2점을 뽑아 승부를 마무리했다. 현대캐피탈도 이날 전남 유관순체육관에서 라이트 박철우(13득점)와 센터 이선규(12득점), 손 무니(11득점)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으로 '불사조' 상무를 3-0(25-18 25-18 25-19)로 완파해 4승(3패)째를 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마라톤·트랙 세계랭킹 50위내 전멸

창던지기 박재명 19위 체면

2006 도하아시아게임에서 28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내는 데 그친 한국 육상이 새해 발표한 세계랭킹에서도 현격한 세계의 벽을 절감했다. 7일(이하 한국시간)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이 발표한 2006년 시즌 세부 종목별 세계랭킹에 따르면 한국 육상은 아시아안게임에서 유일한 금메달을 따낸 창던지기 박재명(태백시청)이 19위에 올라 그나마 체면을 세웠다. 이어 '마의 17m 벽'을 넘어 한국기록을 세운 남자 세단뛰기 김덕현(조선대)과 남

자 20km 경보에서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따낸 김현섭(삼성전자)이 각각 종목 랭킹 26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올림픽 우승을 두 차례 이뤄내고 세계 최고 전종의 보스턴마라톤까지 제패한 한국 마라톤은 최근 깊은 침체기를 반영하듯 단 한 명의 건각도 세계 5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또 남자 100m를 포함해 트랙 전 종목에서 모두 50위권 밖으로 밀렸다. /최재호기자 lion@



8일(월) ▲PGA투어 메트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FR(08:00-SBS스포츠)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삼성생명-KB국민은행)(16:50-SBS스포츠)

Advertisement for '만프레이드' (Manfreid) featuring a muscular man and various fitness products. Text includes '7달간의 중독이 상아탑이다' and '만프레이드'.

Advertisement for 'Furnitex' featuring various home appliances like heaters and air purifiers. Text includes 'Furnitex' and '환기하러 나갈 때는 물론 밤-환기하러 올 때도 환기하러 올 때'.